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전용배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한국과 독일의 결핵승전. 서울 삼양월드컵경기장이 태극기로 물들고 있을 때 독일국기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라고 본다. 집단성은 그것이 내재하고 있는 필연적 위험성 때문에 때로는 경계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승화시키느냐에 따라 선진적 문화로 귀결이 가능하기도 하다.

‘응원문화’ 어떻게 승화시킬 것인가

된다. 우리가 평소 축구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관이 남달라서 ‘조국 사랑’이 지극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대한민국과 나이지리아전. 한국 시각으로 새벽 3시 30분에 경기가 열렸음에도 대한민국은 잠들지 않았다.

이러한 집단성과 확실성 때문에 다양성이 존중받지 못한 역사를 생각하면, 오히려 부정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집단성이 우리 문화의 깊숙한 곳에 축적되어 내면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의가 팽배해오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최근 이러한 집단성이 갖는 이상적인 시스템을 견학한 적이 있다. 광주시에 있는 ‘빛고를 노인건강 타운’이 그곳이다.

‘빛고를 노인건강 타운’은 하루에 이용객이 5천 명이며, 수영장과 호텔급 목욕탕, 점심은 천원을 받지만 체육관, 당구장, 공연장, 물리치료실, 헬스장, 노래방, 무료

용하는 수천 명의 노인들은 우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워 보이지 않았다.

새벽 3시 30분에 수십 만의 인파가 거리에서 ‘오! 필승 코리아’를 외치는 마음의 기저에는 “나 외로우니, 함께 가자. 우리 이렇게 국가를 사랑하니, 우리를 쳐다봐다오”라는 외침이 숨어 있다.

집단적인 응원문화를 보면서 ‘군중 속의 고독’이 보이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시민들이 집단적으로 응원할 수 있는 광장이나 거리를 열어주는 것만으로 국가나 자치단체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모인다’는 현상보다는 왜 모이려고 하는지에 대한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삼삼오오의 서구사회와는 달리 동양의 농경문화는 집단성이 이미 문화에 내재화되어 있다.

이러한 대형 노인건강 타운은 공공영역이 나서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건설이 불가능하다. 다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 노인들은 외로움 때문이라도 함께 있어야 한다.

〈동명대 체육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사상 첫 ‘원정 16강’ 희망은 계속된다

한국 축구가 마침내 새로운 역사를 썼다. 대한민국 태극전사들은 월드컵 출전 사상 처음으로 원정 16강 진출이라는 꿈을 이뤄냈다.

다. 2006년 독일 월드컵까지 6차례 본선 원정길에 올랐으나 한 번도 16강에 오르지 못했다.

태극전사들이 불굴의 투지와 기량을 선보인 이날 새벽 대한민국은 환희와 감동의 도가니였다.

한국 축구가 강해진 것은 무엇보다 허정무 감독과 코치진, 선수들이 혼연일체가 된다는 성공적인 세대교체와 해외파 선수들의 기량이 세계 정상급 수준으로 급성장한데 있다.

원정 월드컵 16강이 더 감격으로 다가오는 것은 우리 축구가 이제 세계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옮겨왔음을 실력적으로 증명했기 때문이다.

16강 진출 패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8강, 4강까지 이어지며 한국 스포츠 역사의 또 다른 금자탑을 쌓아가길 기대한다.

세종시 수정안 부결, 대기업 유치 서둘러야

지난 9개월 동안 국론분열을 불러왔던 세종시 수정안이 마침내 국회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해 광주로 데려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기업 유치는 쉬운 일이 아니다.

세종시 수정안 부결은 광주·전남지역 경제 회생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대기업을 우리 지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대규모 공장부지와 각종 인센티브 제공은 물론 완벽한 행정 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라는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이들 기업들을 대상으로 물 밑 접촉에 나섰다

대기업 유치가 성공할 경우 광주·전남의 기본 잠재력과 상승작용을 해 지역발전의 호재가 될 수 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이기현



가치런하고 고른 치아는 우선 음식을 잘 씹을 수 있게 해 우리 신체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신기술 및 신소재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치아에 위치시킨 브라켓과 치아의 위치를 잡아주는 틀

치아교정에 대한 오해

치아가 예쁜 사람은 자신있는 사회생활과 함께 자기정체성 확립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비해 교정치료를 느껴지던 불편감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키게 됐다.

돌출된 이나 빠드림이를 고르게 하는 치아교정을 위해서는 치아를 움직이기 위한 힘(교정력)을 주어야 한다.

이 같이 치아이동을 위해 불가피하게 눈에 띄거나 다소간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교정치료가 덜 불편하고, 덜 아프며, 눈에 덜 띄거나 아예 보이지 않는 등 환자에게 친근한 교정치료로 바뀌어 가고 있다.

과과학기술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치아 교정분야에서도 교정치료시 이들

《신세계 선이고운치과 원장》

온도 지키지 않는 냉동차 단속 철저해야

여름철만 되면 아이들 학교 주변 노점상 등에서 파는 군것질거리 때문에 식중독 위험이 걱정된다.

도보다 27도 이상 높은 수차다. 냉동차들의 냉동기가 고장이 나서 미지근한 바람이 나오거나 심지어 온도기록계 센서까지 조작해

한여름에 냉동기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식품을 운반할 경우 과연 식품 안전은 어떻게 될까?

▲김집숙·광주시 북구 충효동

기고

하동만



영산강은 전남·광주의 젖줄이다. 영산강살리기사업은 장기적으로 상류권(광주대도시권)의 중추기능 및 문화중심지로 건설, 중류권의 공동혁신도시·마한문화유적 개발, 그리고 하류권의 양대 기업도시 조성사업을 뒷받침하고

강살리기 사업이 최근 들어 전국 규모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일부 반대 여론이 거세지면서 큰 고비를 맞고 있다.

그럼에도 영산강은 전국 4대강 중 수질개선사업이나 치수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지역의 젖줄로서의 역할

무엇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영산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대운하와는 전혀 판

‘영산강 살리기’ 도민 의지 결집할 때

은커녕, 황폐화되어 오히려 사람들의 외면을 받는 강으로 전락하고 있다.

런 없는, 황포돛대가 다닐 수 있는 정도의 배깅복원사업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가져야 한다.

이외에도 지역민들의 염려하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이제 전남의 오랜 숙원사업인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는 계기를 맞고 있다.

이런 배경 속에 추진되고 있는 영산

《전남발전연구원 원장》

無等鼓

“다른 사람의 불행은 꽃뱀”이라는 일 본 속담이 있다.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다. 그리스가 아르헨티나에 진 덕분에 우리는 나이지리아와 무승부를 기록하고도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이라는 신화를 썼다.

인간에게 이런 본능이 있음은 일반 방사선의학연구소가 입증했다.

다. 모든 정치 행위가 반사이익을 기초로 한다.

영국 BBC 방송의 여론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다. 민주당도 잘해서 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office details.